한국어 양보절 접속어미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에 대하여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를 중심으로 -

이금희*

‖ 차 례 ‖

Ⅰ. 서론
Ⅱ. 연구사
Ⅲ. 대립과 양보의 접속어미
  1. 대립과 양보의 개념
  2. 양보의 접속어미
Ⅳ. 양보의 접속어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Ⅴ. 결론

【국문초록】

한국어의 양보 개념은 조건과 대립의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되어 왔다. 기존 논의들에서 양보와 대립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설명되기도 하고 분리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 대립을 상위 범주로 설정하고 양보를 그 하위범주라고 보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양보를 조건문의 한 종류로 보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양보는 대립 관계와 달리 조건이 제시되고 그 조건에서 기대되는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 와야 하는 의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립의 개념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와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가 통용되어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두 범주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의 사용 양상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각각의 어미들은 차이점이 있다.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종결어미 ‘-어, -더라, -(으)ㄹ지라’와 보조사 ‘도’의 결합형으로 양보절 접속문에서 보이는 화용론적 전제가 함축되어 있고 각 어미들은 보조사 ‘도’와 종결어미 ‘-어, -더라, -(으)ㄹ지라’의 성격이 녹아들어 있다. ‘-어도’에 사실성 명제가 결합되고 ‘-더라도’와 ‘-(으)ㄹ지라도’로 갈수록 가정성이 높게 느껴지는 것은 결합되어 있는 종결어미의 의미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양보, 대립, 양보 접속어미, 대립 접속어미, 조건, 기대 부정

Ⅰ. 서론

한국어 접속어미 중 양보절 접속어미는 그 용어에 대한 적절성에서부터 문법적인 범주화, 그리고 양보 접속어미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양보절 접속어미는 일반적으로 선행절에 의해 예상되는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이 후행절에 이어질 때 접속하는 어미들이다. 대표적으로 ‘-아도, -더라도, -ㄹ지라도, -ㄴ들, -ㄹ지언정, -ㄹ망정’ 등이 있다. 논의에 따라서는 ‘-지만, -는데’ 접속어미에도 같은 의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보절 접속어미의 목록을 넓게 보기도 하고 아예 양보라는 문법범주가 ‘대립’이나 ‘대조’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립 범주와 구분될 필요가 없는 범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양보절 접속어미들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 과연 ‘양보’라는 문법범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범주인지와 대표적인 양보절 접속어미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가 대립의 접속어미 ‘-지만, -으나, -는데’ 등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양보절 접속어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의미‘화용적인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사

양보 접속어미는 대립 접속어미들과의 의미 기능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법 범주와 접속어미 목록이 다르게 다루어져 왔다. 초기 논의인 주시경(1910)이나 최현배(1937), 허웅(1975)에서는 양보와 대립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범주로 다루었는데 주시경(1910)의 경우는 '뒤집힘'이라는 의미 기능으로 '-(으)나, -되, -아도, -라도, -거늘, -고도'를 함께 설명하였고, 최현배(1937)에서는 '방임'이란 대범주 속에 '-지만, -거니와, -아도, -(으)나'는 '사실 방임형'으로, '-더라도, -ㄹ지라도, -ㄴ들'은 '가정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 허웅(1975)에서는 '-(으)나, -아도, -라도'를 '불구(양보)'의 개념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후 논의들에서는 양보와 대립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기동(1977), 윤평현(1989), 전혜영(1989), 이은경(2000) 등이 양보와 대립의 범주를 분류한 논의들이다. 특히 이은경(2000)에서는 대립 접속어미들이 보이는 양보적인 해석은 양보 접속어미들이 나타내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대조는 '-으나, -지만'이, 양보는 '-아도, -더라도, -ㄴ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양보의 개념은 대립이라는 큰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조'나 '반대' 등과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논의들도 있다. 서태룡(1979)와 신지연(2004), 서희정·홍윤기(2010) 등이 그것인데 이들 논의에서는 '양보'라는 개념은 선행절에 대한 기대가 후행절에서 부정된다는 점에서 대립의 한 종류인 화용론적 대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보 접속어미의 논의 중 박승윤(2007)은 한국어의 양보의 접속어미 '-어도, -더라도, -ㄹ지라도'가 보조사 '도'와 관련되어 있고 한국어의 양보는 조건의 한 형태임을 주장하였다.

초기의 논의들에서 '-으나, -지만, -어도' 등이 같은 의미 범주를 나타내

는 것으로 설명되어 오다가 '대립'과 '양보'의 의미 범주로 나뉘게 된 계기는 R. Lakoff(1971)에서 'and, but, or'의 접속사 의미를 다룰 때 '가정(presupposition)'을 고려에 넣어야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하면서부터인 것 같다. R. Lakoff(1971:129)에서는 영어 'but'의 의미를 '의미상의 반대(sematic opposition)'와 '기대의 부정(denial of expectation)'으로 나누고 있다.

(1) 가. John is tall but Bill is short.
나. Joh is tall but he is no good at basketball.
(R. Lakoff, 1971:129의 예)

(2) 가. 철수는 {갔지만/갔는데/갔으나/갔어도} 창호는 안 갔다.
나. 이 강은 {좁지만/좁은데/좁으나/좁아도} 너무 깊다.
(이기동, 1977:130의 예)

(1가)와 (2가)의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으로 이때 선`후행절을 접속하는 'but'이나 '-지만, -는데, -으나, -어도'는 모두 대조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1나)와 (2나)는 선행절의 의해 기대되는 상황이나 예상되는 상황이 어그러짐을 나타내는 '기대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이다.

그러나 윤평현(1989)와 전혜영(1989)에서는 '-지만, -으나'는 대립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어도'는 '대립'과 '양보'의 의미 기능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은경(2000)에서는 '-으나, -지만'은 대립으로, '-아도, -더라도, -ㄴ들'은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논의와 달리 이기동(1977), 신지연(2004)에서는 '-지만'과 '-어도' 모두 '대립'과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가. 학생: 선생님, 영희하고 철수가 왔어요?
선생님: 영희는 {왔지만/?*왔어도} 철수는 아직 안 왔어.
나. 영희: 그가 붙잡는데 갈 거야?
숙희: 그가 {붙잡지만/붙잡아도} 갈 거야.
다. 영희: 그가 붙잡으면 안 갈 거야?
숙희: 아니, 철수가 {*붙잡지만/붙잡아도} 갈 거야.
라. 영희: 그가 붙잡았으면 안 갔을까?
숙희: 그가 {*붙잡았지만/붙잡았어도} 갔을 거야.

그러나 (2가, 나)의 예에서는 '-지만'과 '-어도'의 의미 기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대화문인 (3가~라)의 예문을 보면 '-지만'과 '-어도'는 교체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교체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3가)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립 구조를 이루는 경우는 '-어도'의 쓰임이 부자연스럽고 (3나~라)처럼 '그가 붙잡는다'는 사실이 전제 조건이 될 경우 (3나)처럼 '-지만'과 '-어도'의 교체가 가능하기도 하고 (3다, 라)처럼 '-어도'는 가능하지만 '-지만'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들의 차이는 선행절의 [+실제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3나)의 상황은 선행절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3다)는 실재하지 않은 비사실적 상황이고, (3라)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의 반사실적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존 논의에서 '-지만'과 '-어도'를 모두 대립과 양보 구문에 쓰이는 것으로 보아 두 접속어미가 의미 기능상 큰 차이 없이 쓰이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두 접속어미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이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르며 '양보'와 '대립'은 어떤 점에서 구분될 수 있는지, 또한 국어의 양보 접속어미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Ⅲ. 대립과 양보의 접속어미

1. 대립과 양보의 개념

대립 관계와 양보 관계 사이에는 의미 기능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혼란을 유발하기 쉽고 대립 관계 접속어미의 대표적인 '-지만, -으나'가 양보적인 관계에서도 쓰이고, 양보 관계 접속어미의 대표적인 '-어도'도 대립 관계 접속에도 쓰이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대립과 양보는 분리되는 의미 기능이라고 보는 논의와 함께 대립이라는 상위 범주에 양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있어 왔다. 분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논의는 윤평현(1989), 전혜영(1989), 이은경(2000)이고, 통합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논의는 이기동(1977), 서태룡(1979), 신지연(2004) 등이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으나, -지만, -어도' 등이 '대립'과 '양보'를 모두 나타내는 어미로,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대립'을 나타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양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4) 가. 철수는 크지만 영희는 작다.
　　나. 비가 오지만 소풍은 간다
(5) 가. 철수는 커도 영희는 작다.
　　나. 비가 와도 소풍은 간다.
　　다. 비가 오면 소풍은 안 간다. (신지연 2004:79의 예)

(4가)는 선·후행절의 두 대상의 상황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로 어휘와 구문상으로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론적 대립'을 형성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4나)는 비가 오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판단과 대립되는 상황으로 '화용론적 대립'이란 개념으로 다루어진 예이다. (4나)의 화용

론적 대립을 나타내는 예는 (5나)의 문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신지연(2004:79)에서 의미론적 대립 관계인 (4가)와 달리 화용론적 대립 관계를 갖는 (4나)의 대립을 기대를 갖고 있다가 후행절을 통하여 이 기대가 배반되는 (5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자의 입장에서는 '대립'과 '양보'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대립'의 하위 범주인 화용론적 대립은 선행절의 내용과 다른 판단의 대립, 인식상의 대립 관계의 내용이 후행절에 올 때가 있으나 '비사실성'의 내용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기대가 부정되어 제시되는 양보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은경(2000:247)은 화용적인 대립은 표면적인 사태의 대립인 의미론적 대립 관계와 달리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대조되는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후행절 사태가 화자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양보와도 구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화용론적 대립'과 '양보'는 과연 같은 의미 기능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 실제로 (4나)와 (5나)는 모두 (5다)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6) 가. 영수: 철수가 붙잡으면 너 안 갈 거지?
영희: 아니요, 철수가 **{붙잡아도/*붙잡지만}** 난 갈 거야.
나. 영수: 철수가 그렇게 붙잡는데 너 안 갈 거지?
영희: 아니, 철수가 **{붙잡지만/?붙잡아도}** 난 갈 거야.
다. 선배: 언니가 너 위해 소개팅 자리 마련했어.
후배: 전 그런 자리 어색해서 싫어요.
선배: **{싫어도/*싫지만}** 한번 만나 봐. 어렵게 마련한 자리야.
후배: 그래요? 그런 자리는 정말 **{싫지만/*싫어도}** 한번 만나 볼게요.
라. 영희: 술에 취해서 철수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영수: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취했지만}** 그렇지, 어떻게 철수한테 그런 짓을 해?

그러나 (6가~라)의 문장을 살펴보면 '화용론적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지만'이 쓰인 경우와 '양보'를 나타내는 '-어도'가 쓰인 문장이 완전히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1] (6가)의 예는 철수가 붙잡는 상황이 되면 상대에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붙잡아도 갈 거야'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붙잡지만 갈 거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6나)의 경우는 '-지만'이나 '-어도' 모두 자연스럽다. (6가)와 (6나)의 상황은 비슷한 듯해도 (6가)는 철수가 붙잡는 상황이 조건으로 제시된 경우이고 (6나)는 실제 붙잡는 상황이 제시된 경우이다. 그러면 (6가)의 경우 왜 '-어도'는 가능한데 '-지만'은 불가능한 것인가? '-어도'는 선행절에 화자가 조건으로 가정해 제시한 상황이 오고 후행절에 일반적으로 그런 조건의 결과와 반하는 상황이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정된 조건에 의해 따라오는 기대와 다른 상황이 올 때 '-어도'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6나)의 대답에서는 '붙잡지만'과 '붙잡아도'가 모두 자연스럽다. 질문을 보면 철수가 붙잡는 상황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그런 배경 하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때 대답은 실제 붙잡는 상황과 대립적인 행동을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붙잡는 상황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질문을 하는 화자나 붙잡는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기대와는 다른 행위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처럼 선행절의 내용과 대립되는 행위가 연결됨을 나타낼 때는

1) 본고에서 '대립'은 '대등 접속문'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양보'는 '종속 접속문'의 하위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화용론적 대립 관계'가 종속 접속문적인 성격과 대등 접속문적인 성격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특징을 보이나 화용론적 대립도 대등과 종속의 접속을 구분하는 분류 체계에서는 대등 접속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태도는 대립(opposition)이 내용적인 층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인 층위에서의 대립도 존재하고 화행적인 층위에서도 존재한다는 Sweetser(1990: 159)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지만’을, 질문자나 행위자가 제시한 조건과는 다른, 즉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나타낼 때는 ‘-어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화자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대답하느냐, 아니면 선행절을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냐에 따라 ‘-지만’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어도’로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6다)의 대화 상황을 살펴보면 선배가 후배에게 말하는 상황에서는 ‘싫어도 만나 봐’ 표현이 자연스럽고 후배는 선배에게 ‘싫지만 만나 볼게요’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후배를 위해 소개팅 자리를 마련하여 만나 보라고 권유를 할 때 선배는 후배(상대방)의 싫다고 하는 감정과 대립되는 행위를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싫다’는 감정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반하는 결과의 행위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어렵게 마련한 자리이니 만나 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러나 후배는 ‘싫다’는 것이 자신의 감정이므로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대립적인 행위를 하겠다, 즉 ‘싫다’ 그렇지만 ‘만난다’는 대립되는 행위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타인의 일에 대해서는 대립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양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대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의사 표현 방식일 것이다. 즉,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것은 가정된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반면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라)의 경우는 영희가 ‘술에 취한 행위로 인해 헤어지자고 말한 행위가 일어났다’고 ‘원인-결과’ 관계의 문장을 영희가 말하니 영수가 ’술에 취한 행위가 조건으로 제시되어도 헤어지자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조건-결과’ 관계의 문장을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선ᆞ후행절이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지만'이 결합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양보를 본고에서처럼 조건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그 성격을 규명한 대표적인 논의는 장경희(1995)와 박승윤(2007), 그리고 박재연(2011)이다. 장경희(1995:166)에서는 양보를 조건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면서 '-으면'은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연결어미로 보고 '-어도'는 예외적인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보다 좁은 의미의 연결어미로 보았다. 박승윤(2007:69~70)에서는 양보의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건문이 존재해야 하며 양보문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극단을 선택한 극단성 조건문이나 비최적성 조건문을 형성한다고 논의하였다. 이는 박재연(2011:177)에서 비판되었듯이 양보 표현이 모든 문맥에서 보편적인 조건이나 최적성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화ᆞ청자의 공유된 지식을 전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성과 비최적성을 가진 조건문이라는 점은 몇몇 제한된 문맥에서의 의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2] 박재연(2011:174)은 양보절, 양보구문의 양보가 '어떤 것을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주는 것'이라는 일상 언어의 의미와도 맞지 않고 선행절 행위의 사실성을 임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서 선행절의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명명이 아닌 발화의 화행(speech act)와 관련한 명명으로 적절치 않음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후행절 사태의 발생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질을 관여성이라고 하면서 '조건문'에서의 선행절은 '관여적인 조건'이 되는 반면 양보구문의 선행절은 '비관여적인 조건'으로 '양보'는 '비관여적인 조건'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양보는 조건의 일종이고 조건 중에서 후

2)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비가 와도 소풍을 가고 태풍이 불어도 소풍을 간다'는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상황'이 극단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행절 사태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으로 '-어도'와 관련된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메타언어로 '비관여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조건의 하위 유형에 '관여성 조건'과 '비관여성 조건'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조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데 전제된 것으로 후행 사건과 관여하지 않는 사건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비관여적 조건'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용어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3] 양보절은 일반적으로나 청자의 인식에서는 관여적일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 화자의 판단이나 특정 상황에서 비관여적인 것으로 평가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의외의 결과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조건'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7) (일반적 상식: 사우디 학생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가: 사우디 학생 만수르가 삼겹살을 먹을까요?
나: 사우디 학생이면 삼겹살을 안 먹죠.
나′: 사우디 학생이라도 삼겹살을 먹어요.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니까.

(7)의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우디 학생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경우 (7가)와 같은 질문에 일반적인 상식과 맞는 경우는 (7나)처럼 대답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7나′)처럼 대답할 것이다.

3) 박재연(2011:180)에서는 '조건'을 선행절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후행절 사태가 발생할 때 선행절이 가지는 속성을 넓게 이해한 개념으로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비관여적 조건 역시 조건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양보'의 용어로 '양보절'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만큼이나 큰 부담감을 갖게 하는 설명이라고 본다.

이는 장경희(1995:166)에서 양보 관계를 조건 관계 법칙에 어긋나는 관계로 정의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어겼다는 관점에서 [-준법칙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 선ˋ후행절을 대립 관계로, 또는 양보 관계로 태도를 달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대립 관계로 표현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양보 관계로만 표현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가, 다, 라)에서 '-어도'만이 자연스럽고 '-지만'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는 양보 관계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이며, (6나)처럼 '-어도'와 '-지만'이 모두 가능한 경우는 선ˋ후행절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양보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것이다.

양보를 대립의 하위 범주로 보거나 화용론적 대립과 양보를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게 되면 (6가~라)처럼 서로 교체될 수 없는 예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8) 가. 철수는 {갔지만/갔는데/갔으나/갔어도} 창수는 안 갔다.
나. 이 강은 {좁지만/좁으나/좁아도/좁은데} 너무 깊다.
다. 창수는 가도 명수는 안 간다.
라. 난 쇠고기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

(이기동, 1977:131의 예)

이기동(1977:131)에서는 (8가, 다, 라)의 예문의 선ˋ후행절은 의미상의 대조를 나타내고, (8나)는 기대의 부정 관계를 나타내는 양보로 보고 있다. 그러나 (8나)의 문장도 '이 강은 폭은 {좁지만/좁으나/좁아도/좁은데} 깊이는 너무 깊다.'처럼 서술어의 직접 주어를 설정하면 (8라)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좁다'의 직접적인 대립어는 '넓다'이지만 '좁다, 얕다, 낮다' 등의

반의어가 '넓다, 깊다, 높다' 등으로 일대일대응의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 개념의 의미 대립어에서 선행절은 [-] 개념의 어휘가 오고 후행절은 [+] 개념의 어휘가 위치하면서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선`후행절의 대립 관계가 선`후행절의 반의어가 위치해 있어야만 형성한다기보다는 '언니는 얼굴은 예쁘지만 성격이 나빠요.'에서처럼 일대일 대립 관계가 아닌 계열상의 대립 관계인 '예쁘다'와 '나쁘다'가 올 경우에도 대립 관계의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8가, 나)에서 '-지만, -는데, -으나, -어도'가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같은 의미 기능을 갖는 '대립'이나 '대조'라고 보는 것은 한국어 접속어미의 의미 기능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장은 '철수는 가고 창수는 안 갔다.'라는 문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같은 '대조 또는 대립' 관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는데'의 경우 (9가)의 예문에서처럼 선행절이 후행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 선행절 사건의 배경 하에 관련된 후행절 사건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후행절이 항상 반대의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는데 해도 떴어'의 경우 의미적으로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대립'이 '-지만, -으나'의 대립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때는 선행절 사건의 배경 하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사건이 후행절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립'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즉, 후행절 사건에 존재하는 대립은 '비가 올 때' 일어나는 '천둥이 친다.', '번개가 친다.'는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해가 뜬다.'는 특이한 사건이 선택되면서 일반적인 사건들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화용론적인 대립을 나타내고 있다.

(9) 가. ㄱ: 밖에 비 오니?
ㄴ: 비가 오는데 {바람도 불어/천둥도 쳐/해도 떴어}.
나. ㄱ: 이번 MT에 창수와 명수, 영수 모두 가요?
ㄴ: 창수는 {가지만/가는데/*?가도/?가나} 명수와 영수는 안 가.
다. ㄱ: 아내도 죽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ㄴ: 아내는 {없지만/*없는데/없어도/?없으나} 나한텐 엄연한 처갓집이야.

또한 (8)과 같은 단일 문장이 아닌 대화 상황의 (9나, 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지만, -으나, -는데, -어도'의 표현들이 교체되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어의 '-지만, -으나, -는데, -어도'를 대립이나 대조라는 하나의 의미 기능으로 단순화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0) 가. 정일: 저희는 처음부터 미스터 한이 무척 흡족했습니다.
혜림: 부족한 {자식이지만/*자식이어도} 우리 세나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웨딩-2회>
나. 아무리 연애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듣지만} 끝내 정답을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사랑 아닐까. <지금은연애중-16회>
다. 큰 독에다 온갖 양념해서 넣고 땅에다 묻어요. 삼년을 {먹어도/ *먹지만} 까딱없어요. 창란젓은 이렇게 맹글어 먹었어요.

실제 구어 말뭉치를 검색한 예인 (10가~다)를 살펴보았을 때 화용론적 대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10가)에서는 '-어도'가 쓰일 수 없고 (10나, 다)의 양보 관계에서는 '-지만'이 쓰일 수 없다. 이는 유사한 듯 보이는 '-지만'과 '-어도'의 의미 기능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화용론적 대립'과 '양보'는 동일한 의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립과 양보의 개념을 같은 개념이나 상`하위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양보의 접속어미

국어에서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들은 주로 '-지만, -으나'이고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들은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등이다. 양보 관계의 접속어미 형태들은 공통적으로 종결어미 '-어, -더라, -(으)ㄹ지라'에 보조사 '도'가 결합된 후 하나의 접속어미로 문법화된 것들이다.[4] 이에 양보의 접속어미들에는 종결어미와 보조사의 의미 자질들이 녹아 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평서형 해체 어미 '-어'나 과거에 지각한 사실을 보고하듯 말할 때 쓰는 '-더라', 그리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으)ㄹ지라'는 모두 화자가 믿고 있는 사실이나 경험한 사실이나 추측하고 있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종결어미이다. 그리고 '도'는 기존에 어떤 내용이 존재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추가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1) 가. 나는 사과도 먹는다.
나. 나는 과일 중 어떤 것[딸기, 바나나, 수박…]을 먹는다.

4) 어미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형성을 이금희(2006:66)과 박승윤(2007:75)에서처럼 조사 '이라도'와 함께 '-더라(고) 하여도, -이라(고) 하여도'의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양보절 어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와 조사 '이라도'는 종결어미와 보조사 '도'가 결합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종결형과 조사가 결합된 '-지마는, -습니다마는(만), -(으)ㄹ까마는, -을까도(집에 갈까도 생각해 보았다.)'의 형태들이 존재하는 것과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되었다면 '-더래도, -(으)ㄹ지래도, -이래도'로 그 형태가 굳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12) 가. 그는 가족을 위해 구걸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나. 천재도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울 것이다.

(11가)의 '사과도'처럼 보조사 '도'가 쓰일 경우 문장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는 (11나)와 같은 내용이 전제된다. 그리고 (12가, 나)처럼 추가되는 내용이 극단적인 선택이 될 때는 '의외나 예상 외'라는 [+비예상성]이나 [+의외성]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도'의 의미들은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양보의 접속어미로 문법화되었을 때도 존재하는 듯 보인다.[5]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로 연결된 접속문에 '전제'가 존재한다는 점과 선행절의 조건에 대해 후행절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 다른 의외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그것이다.

(13) 가. 남자가 돈이 많아도 여자는 그가 마음에 안 든다.
나. 남자가 돈이 많더라도 여자는 그가 마음에 안 든다.
다. 남자가 돈이 많을지라도 여자는 그가 마음에 안 든다.
라. 남자가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

(13가~다)의 '-아도, -더라도, -(으)ㄹ지라도'가 쓰인 문장들은 (13라)와 같은 화용론적 전제가 들어있게 되고 후행절은 선행절의 조건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결과가 아닌 내용이 연결된다.

5) 박승윤(2007:71-72)에서는 양보의 의미는 '비예상성'을 나타내는 '도'가 기준을 제공하는 조건문에 견주어 이해될 때 발생한다고 하면서 양보는 '비예상성'과 조건성(conditionality)의 두 의미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양보가 조건 표지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양보가 조건의 한 형태라는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논의에서 양보 구문의 선행절은 '비사실성(가정)'의 사태와 관련되고 대립 구문의 선행절은 사실성을 가지는 사태와 관련되는 것으로 구분해 왔다. 이때의 '사실성'과 '비사실성'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화자가 어떤 사태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비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른 '사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사실적인 것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표현한 것을 말하고, 실제 세계와 반대로 가정하는 것은 '반사실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Akatsuka 1985:636) 그런데 국어의 양보절 논의에서는 '사실성'과 '비사실성'의 개념을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실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사실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윤평현(1989:36)에서는 선행절이 사실이면 대립 관계 접속어미로, 사실이 아닌 가정이면 양보 관계 접속어미로 보았고, 장요한(2009:497-498)에서는 '-어도'와 '-더라도'의 차이점이 선`후행절의 사실성을 갖느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어도'는 사실적 사건, 비사실적 사건, 반사실적 사건 모두에 결합될 수 있는 반면에 '-더라도'는 비사실적 사건이나 반사실적 사건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대화하는 (14가)의 경우 '-어도'만이 가능하고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안 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양보 구문의 '사실성'과 '비사실성'의 개념을 기존 논의처럼 받아들였을 때 신지연(2004:81)에서 '비사실성' 개념이 양보 구문의 범주화 기준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논의는 타당해 보인다.[6] (15가~라)에서 보는 것처럼 후행

6) 이에 대해서는 박재연(2009:135-6)에서도 지적하였는데 이은경(1990:77)과 최재희(1992:157)에서 '-어도'와 '-더라도'를 비교하면서 '-더라도'가 비현실 상황에만 사용된다고 보았으나 '-더라도'가 현실 사태에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더라

절의 시제에 따라 선행절의 사실성 여부는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선행절의 내용이 달리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4) 가. 문이 잠겨 {있지만/ 있어도/있더라도/있을지라도] 기다리자.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세계
나. 내일 비가 {와도/오더라도/올지라도] 소풍을 가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불확실한 세계
다. 남편과 결혼 안 {했어도/했더라도/했을지라도] 지금보다 낫지는 않을 거야.
[남편과 결혼했다는 것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상황]-반사실적 세계

(15) 가. 철수가 선물을 해도 영희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 철수가 선물을 해도 영희는 기뻐하지 않는다.
다. 철수가 선물을 해도 영희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 철수가 선물을 했어도 영희는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지연, 2004:82의 예)

일반적으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화자가 사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을 비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의 발생 여부와 화자의 인식 범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

도'의 '비현실' 속성은 일종의 경향성으로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1) 가. 은주가 아무리 위로해도 나는 슬펐다.
나. 은주가 아무리 위로하더라도 나는 슬펐다.(이은경 1990:77)

(2) 가. 아무리 그 애가 네 동생이더라도 그 애만 두둔하면 되겠니? (서정수 1994:1152)
나. 머리칼은 긴 곱슬머리로서 농담이 다양한 갈색이며, 검더라도 진짜 검은색은 아니고 갈색을 띠고 있다.(이희자'이종희 1999:174)
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친구 결혼식에는 갔다.

건도 화자가 그것을 사실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 가. 나는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것이다 / 간다}.
나. 너는 내일 선생님한테 {혼날 것이다 / 혼난다 /혼났다}.

(16가, 나)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앞으로 일어날 일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표현하기도 하며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실제 세계에서의 발생 여부와 화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보 구문에서도 선행절 사건을 화자가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어미들을 선택해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도'는 '사실성'과 '비사실성'에 대해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쓰는 어미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도'는 접속되는 선행절 내용에 대해 화자가 그 사건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무표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쓰는 어미라고 생각한다.[7)]

(17) 가. 비가 {오면/*왔으면} 농사가 잘 {됐다/된다/될 것이다}.

---

7) '-어도'의 무표성에 대해서는 이은경(1996:193), 박재연(2009:135)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하는 언어에서 '조건'은 비현실 표지가 나타나는 주요한 문법적 환경이지만(Chung & Timberlake 1985, Chafe 1995, Palmer 2001 등), 한국어에서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으면, -어야, -어도' 등은 모두 비현실을 의미 기능으로 갖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현실성 사태와 비현실 사태에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 속성에 대해 무표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 날씨가 안 좋으면 {소풍을 안 갔다. /소풍을 안 갈 것이다.}
나. 날씨가 좋아야 {소풍을 가곤 했다. / 소풍을 가지.}
다. 날씨가 안 좋아도 {소풍을 갔다. / 소풍을 갈 것이다.}

나. 나는 차를 {운전할 때/*운전했을 때} 많이 {졸렸다/졸린다/졸릴 것이다}.
다. 남편이 생일선물을 주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좋지 않아/*좋지 않을 거야}
다′. 남편이 생일선물을 주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좋지 않아/*좋지 않을 거야}
다″. 남편이 생일선물을 줄 거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좋지 않아/좋지 않을 거야.}

국어의 접속어미들을 살펴보면 (17가)의 조건을 나타내는 '-(으)면'은 선행절의 조건과 후행절의 결과를 연결하는 것으로 선행절 내용의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화자가 무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후행절 사건의 시제 요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접속어미는 아니지만 (17나)의 '-(으)ㄹ 때'도 선행절 내용에 대해 화자가 사실성 판단에 대해 무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7다~다″)의 '-지만'은 선행절이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있고 이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른 시제 요소를 결합하여 나타낸다. 즉, 대립의 접속어미인 '-지만'의 경우는 화자가 선행절에 대해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표현되는 데 반해 '-어도'는 '-(으)면'처럼 선행절에 대한 화자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무표적인 태도를 갖고 선행절 명제 내용이 조건으로만 제시되고 후행절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그에 반하는 상황이 오면 '-어도'를 결합하는 것이다.

Ⅳ. 양보의 접속어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어미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결합하는 명제, 즉 선행절로 오는 명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논의되어 왔다. 이기동(1977), 윤평현(1989), 최재희(1989) 등에서는 '-어도'에 선행하는 절의 동작이나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더라도'와 '-(으)ㄹ지라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실현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가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어도'에서 '-더라도', 그리고 '-(으)ㄹ지라도'로 갈수록 양보의 의미 기능이 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화자가 무표적인 태도를 취하는 접속어미라 할 수 있다.

(18) 가. 비가 와도 우리는 출항할 것이다.
나. 영이가 붙잡아도 철수는 밖으로 나갔다.
다. 눈이 왔어도 산에 갔었을 것이다.
(장요한, 2009:497의 예)
라. 나는 죽어도 그런 일은 못해.
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요즘은 대학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바. 비가 오더라도 적당히 왔으면 좋겠어. 이것은 쏟아붓는 격이다.
사.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는다.
(서정섭, 1991:49예)

'-어도'의 경우 (18가~다)의 예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의 사건이 사실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실성을 갖는 내용부터 사건에 대해 참과 거짓이 부여되지 않은 것, 즉 가정된 것, 그리고 선`후행절의 사건에 대해 거짓이 부여될 수 있는 반사실적 사건 모두에 결합될 수 있다.(장요한2009:496)

거기에 (18라)에서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조건으로 제시해 표현할 때도 '-어도'가 사용될 수 있다. (18마~사)는 '-더라도'와 '-(으)ㄹ지라도'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성 명제에도 결합하는 경우로 기존에서 논의된 것처럼 '-어도'나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차이를 명제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 가. ㄱ: 나 그런 자리 어색해서 싫은데.
ㄴ: {싫어도/싫더라도/싫을지라도} 할 수 없어. 나한테 이게 어정쩡을 벗어난 첫 번째 단계니까.
나. ㄱ: 미안합니다.
ㄴ: 그래도 돌아올 줄 알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있더라도/있을지라도} 항상 내 곁으로 돌아오던 녀석이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19가, 나)의 예는 드라마의 대화 문장인데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상황일 때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도'와 '-더라도, -(으)ㄹ지라도'를 [±사실성]을 가진 명제와의 결합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어도'와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공통적으로 '도'라는 보조사를 취하고 있으면서 각각 다른 종결형인 '-어, -더라, -(으)ㄹ지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8] '-어'는 화자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할 때 쓰는 어미이고, '-더라'는 화자 자신이 믿는 사실이 아닌 목격한 사실을 보

8)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을 '-어, -더라, -(으)ㄹ지라'에 '도'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논의에 대한 것은 박승윤(2007)과 박재연(2010)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고(報告)할 때 쓰는 어미이며, '-(으)ㄹ지라'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기존 논의에서 '-더라도'보다 '-어도'에서 더 사실성을 느끼게 된 것도 화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단정할 때 쓰이는 평서형 종결어미 '-어'가 쓰였기 때문에 목격한 사건을 보고하는 '-더라'가 결합된 '-더라도'보다 더 사실 명제와 결합하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더라도'는 '-어도'보다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확신성이 떨어지고 가정성이 높은 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즉, 선행 명제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올 수 있느냐 아니냐가 '-어도'와 '-더라도'를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사건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0) 가. 나는 {죽어도/ ??죽더라도/ ?*죽을지라도} 널 못 보내.
나.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더라도/ 무너질지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21) 가. 우리 아버지 내가 세 살에 {돌아가셨어도/*돌아가셨더라도/*돌아가셨을지라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나. 넌 원래 사랑이 많은 애라, 남자를 만날 때마다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난 달라. 남자는 {많았어도/*많았더라도/*많았을지라도} 내 쪽에서 사랑을 준 적은 없어. <지금은연애중6>
다. 난 혼자 살고 {싶어도/*싶더라도/*싶을지라도}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그렇기 때문에 (20가, 나)처럼 극단적인 선택 조건으로 실제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는 일임에도 화자의 확신이나 결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더라도, -(으)ㄹ지라도'보다 '-어도'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화자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조건으로 내세워 양보 구문을 형성하는 (21가~다)

에서는 추측이나 가정된 사실을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어색한 상황이므로 이때는 모두 '-어도'만이 자연스럽다.

화자의 확신이 가장 떨어지는 표현은 추측의 종결어미가 결합된 '-(으)ㄹ지라도'로 이 표현은 추측이나 가정된 일에 표현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 발생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상황의 조건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22) 가. "저녁이 없는 모양이니 나는 사처루 가겠네." 하고 곧 일어나려고 하니 "{굶더라도/굶어도/?*굶을지라도} 같이 굶으셔야지 그런 인심이 어디 있어요?"<임꺽정>
나. 나 혼자 당하고 말지 하고 참았죠. 아버님 편지하신 것을 {보더라도/봐도/*볼지라도} 딱 두 줄 반이에요. "애비 원망마라, 운명으로 생각해라. …"
다. 난 이담에 어른이 {되더라도/돼도/?*될지라도}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야. <파파7>

그렇기 때문에 (22가~다)처럼 화자와 청자의 인식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에는 '-(으)ㄹ지라도'의 결합이 어색하게 된다. (22가)는 화자와 청자 모두 저녁 식사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굶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22나)는 아버지가 편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며 (22다)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적인 일이거나 당연한 사실에 '-(으)ㄹ지라도'처럼 가정하는 표현은 어색한 것이다.

(23) 가. 해가 서쪽에서 {뜰지라도/?뜨더라도/??떠도} 철수는 일찍 못 온다.
나.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죽을지라도/?죽더라도/??죽어도} 동지들

을 배신할 수는 없다.
다. 내가 억만금이 {있을지라도/있더라도/있어도}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다.

반면에 (23가~다)처럼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발생하기 어려운 일일 경우에는 '-(으)ㄹ지라도'로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물론 이런 상황에 '-더라도'와 '-어도'를 써도 되지만 '-(으)ㄹ지라도'를 썼을 경우 조건에 대한 가정성이 커지면서 더 강한 어조의 양보 구문으로 느껴진다.

Ⅴ. 결론

지금까지 국어의 양보절 접속어미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양보는 대립의 개념과 통합되어 논의되기도 하고 구분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 양보의 개념은 대립의 하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양보는 대립 관계와 달리 조건이 함의되고 그 조건에 기대되는 결과와 반하는 내용이 와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점에서 대립의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와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들이 통용되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들 각각의 접속어미의 사용 양상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고유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종결어미 '-어, -더라, -(으)ㄹ지라'와 보조사 '도'의 결합형으로 양보절 접속문에서 보이는 화용론적 전제가 함축되고 있고 각 어미가 갖는 의미적

특징은 보조사 ‘도’와 종결어미 ‘-어, -더라, -(으)ㄹ지라’의 성격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도’에 사실성 명제가 결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더라도’와 ‘-(으)ㄹ지라도’로 갈수록 가정성이 높게 느껴지는 것도 모두 이들 종결어미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본고는 양보절 접속어미에 대한 논의로 그 문법 범주적 특성과 대표적인 양보절 접속어미 ‘-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의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양보절 접속어미인 ‘-(으)ㄴ들, -(으)ㄹ망정, (으)지언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이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이기동(1977), 「대조'양보의 접속어미의 의미연구(1)」, 『어학연구』 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p.129-137.

남기심 · 고영근(198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3-53면

서태룡(1979), 「국어 접속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요한(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보 접속어미의 연구-'-아도, -더라도, -고도, -은들'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81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483-503

박승윤(2007), 「양보와 조건」, 『담화와인지』 14-1, 담화 · 인지언어학회, pp.63-83.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 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pp.119-141.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52, 국어학회, pp.167-197.

신지연(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 84, 한국어문학회, pp75-98.

서희정 · 홍윤기(2010), 「한국어 교육에서 양보 접속어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pp.185-208.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금희(2006), 「인용문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 · 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2000),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태학사.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pp.88-130.

장경희(1995), 「국어 접속 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 한글학회, pp.151-174.

전혜영(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재희(1989), 「국어 접속문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함병호(2013),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동악어문학』 60, 동악어문학회, pp.107-148.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Akatsuka, Noriko(1985), Conditionals and the epistemic scale, Language 61-3,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pp.625-639.

Bak, Sung-Yun(2003), Conditionals in Korean Revisited.「담화와 인지」10-2, 담화・인지언어학회, pp.25-52.

Chafe, W.(1995), The Realis-irrealis Distinction in Caddo, the Narthern Iroquoian Language, and English, In J. Bybee & S. Fleischman eds.(2005), pp.349-365.

Chung, S. & A. Timberlake(1985), Tense, Aspect and Mood, In Shopen (ed). 1985, pp.2002-258.

König, E. & J. van der Auwera(1988) Clause integration in German and Dutch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Inj. Haiman & S.A.Thompson(eds.), Clause con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p.101-133.

Lakoff, R.(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ction, In: Fill-more and Lagnendoen(1971),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eeter, Eve(1990), For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이브스윗처, 김주식・나익주・박정운 옮김, 박이정(2006).

Quirk, Randolph et al.(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 Seminar Press. pp.747-749.

Abstract

Grammatical category and semantic properties of conjunctional ending in Korean concessive clause

- Mainly about clause meaning

'-eodo(-어도), -deorado(-더라도), and -euljirado(-을지라도)'

Lee, Keum-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lucidate characteristics of grammatical category of concession and semantic functions of concessive conjunctive endings. We argue that concession is different from opposition. This paper focuses on concessive conjunctive endings (-eodo어도, -deorado더라도, and -euljirado을지라도) and oppositive conjunctive ending (-jiman지만). They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ir meaning. It has been said that concessive conjunctive endings have the meaning of 'denial of expection' and the meaning of 'denial of expectation' is the meaning of pragmatic oppositive conjunctive endings. However, category characteristics of concession are condition in the antecedent clause with denial of expectation in the following clause. This means that 'do(도)' is basically a determiner which can co-cocur with any element of a sentence in Korean. Therefore, 'do(도)' has been grammaticalized to a conditional marker in Korean when it is attached to a verb form. There are three conjunctive endings in Korean that denote concession: '-eodo', '-derato', and '-euljirado'. These three conjunctive endings are similar in that they all denote concession. However, they are not the same. They are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in terms of the speaker's assessment of probability. When the conjunctive ending '-eodo' is used, the event described by the verb to which the ending is attached to may or may not occur. The speaker is not interested in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ending of '-deorado' or '-euljirado' is used, the speaker assumes that the event is not likely to occur.

Key Word : Concession, Opposition, Concessive Conjunctive Endings,
Opposition Conjunctive Endings, condition, denial of expectation

이금희
소속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 dawon4068@cbnu.ac.kr

이 논문은 2017년 11월 8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